



김 창 년

〈 통상산업부 석유수급과 사무관 〉

### 1. 머리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지적하는 해외컨설팅회사 전문가의 말이다. 그는 한국의 외환위기는 충분히 예측된 일이며, 막을 수도 있었지만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안이한 대책으로 IMF 관리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외환위기로 인한 석유수급 불안은 당장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최근의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급 안정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석유 수급동향을 1일 점검하고 석유수급 안정화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석유수급 애로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2. 석유수급동향

### 가. 원유수급동향

IMF자금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97.12월 중순 이후 정유사들의 국내외 은행을 통한 유전스 L/C개설이 대부분 중단되는 등 외환, 금융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원유도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98.1월말까지 원유도입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적이 대부분 완료되어 국내로 수송중에 있으므로 1월말까지의 원유도입 및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98.1.5 기준 정유사 원유처리량은 2,600천배럴로 106.6%의 정제시설 가동율을 기록하는 등 원유도입, 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 나. 석유제품 수급현황

97.12월 정유사 석유제품 출하는 석유제품 가격인상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한 54.7백만배럴을 기록하였으며, 석유제품 생산은 설비증설 및 가동율 증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한 64.1백만배럴을 기록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급

(단위:백만배럴)

	수요			공급			재고
	출하(내수)	수출	소계	생산	수입	소계	
1996.12	57.4	14.4	71.8	57.5	9.5	67.0	30.5
1997.12	54.7	19.0	73.7	64.1	7.0	71.1	31.4
	(△4.7)	(32.0)	(2.6)	(11.4)	(△25.6)	(6.2)	(3.0)

\*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휘발유는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0.2% 감소에 그쳤다. 이는 주유소 등 석유유통시설에서 평균재고량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등유는 온난한 날씨(97.12월 서울지역 평균기온:1.8°C) 에도 불구하고 등·경유간 가격차

이 해소로 등유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9.6%증가함. 경유는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1%증가하는데 그침. B-C유는 가격 인상 및 한전 구매물량 감소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26.4% 감소했다.

유종별 소비동향

				(단위:천배럴)	
	1997.12	1997.11	1996.12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휘발유	6,617	5,765	6,633	17.1	△0.2
등유	16,148	8,598	14,737	187.8	9.6
항공유	1,644	1,540	1,530	6.8	7.5
경유	17,950	14,274	17,755	25.8	1.1
(저유황)	(16,442)	-	(16,082)	-	2.2
B-C유	12,336	13,544	16,762	△8.9	△26.4
(저유황)	(9,801)	-	(12,840)	-	△23.7
소계	54,695	43,721	57,417	25.1	△4.7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석유재고는 원유 73,191천배럴(미통관 물량 포함) 및 주요제품 34,732천배럴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유사 등유재고는 월초 10,373천배럴에서 월말 7,464천배럴로 월초대비 28.0% 감소했다. 제품별 지속일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유를 생산수율로 환산하는 경우, 지속일수(96년 12월 수요기준)는 휘발유 45일, 등유 38일, 경유 58일 수준이다.

석유류 재고

(단위:천배럴, 일)

	정부	민간			합계
		통관	미통관	소계	
원유	43,365	14,772	15,054	29,826	73,191
휘발유	90	3,001	-	3,001	3,091
등유	1,687	7,464	-	7,464	9,151
항공유	-	1,400	-	1,400	1,400
경유	1,494	9,486	-	9,486	10,980
B-C유	-	10,110	-	10,110	10,110
제품합계	3,271	31,461	-	31,461	34,732

\* 97년 12월 기준

### 3. 석유수급안정화 대책

원유 도입계약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약 30일 후에는 국내수급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도입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지난 12월부터 석유수급 안정화대책을 수립하고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석유 수급상황의 악화 정도에 따라 수급안정대책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원유 확보, 소비절약, 수급조정, 비축유방출 등 수급 양면의 대책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공공부문의 차량 10부제 등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강화추진하는 한편 정유사 자금난 완화시책 등을 통한 원유확보 방안 또한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음. 97.12월에 정유업계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유예(2개월), 민간비축의무량 하향 조정(33일→30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울러, 만일의 수급차질 사태시에는 국내 보유 64일분(98.1.2 현재)의 석유를 적절히 활용하여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을 안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맺는말

석유분야는 1,2차 석유위기를 통해 위기관리를 추진해본 경험이 있으나, 최근 원유가격 하락 및 공급 원활화에 따라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외환위기에 따른 석유수급상의 긴장상황 발생을 통해 석유분야 위기관리를 추진중에 있으며, 동 시스템을 정비한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향후 구축하고자 한다. 최근 겪고 있는 에너지수급상의 긴장상황은, 과거의 석유 위기가 산유국에 의해 초래된 것과는 달리 국내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국내 외환사정이 호전되는 경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이를 위해서 정부, 정유업계 특히 일반 국민들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외화절감 및 수급안정화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